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과 시사점

— 목 차 —

1.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추진배경
2.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3. 개정 “EU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2006)
4. 유럽 2010전략
5. 시사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
김만영
mykim@keiti.re.kr



유럽연합(EU)은 2001년 환경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평등과 결속,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함께 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해 왔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0년 3월 EU는 환경보다는 경제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둔 ‘Europe 2020’이라는 신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물론 이 전략이 애시당초 경제성장을 더 중시한 ‘리스본 전략’의 후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경제적 번영의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른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더 잘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¹⁾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연구자²⁾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바람직한 국가 발전 모습으로, 인류사회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비전”으로 규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천적 측면에서 정책적 적용에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경제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구현이 쉽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1.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추진 배경

1992년 리우선언 이후 EU는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전의 환경행동 프로그램이 ▲사전예방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환경영향 고려 원칙 ▲보충(subsidiarity) 원칙³⁾이었던데 반해 1993년 1월에 수립한 제 5차 환경행동 프로그램(5th EAP)⁴⁾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도입되고,

1) Brundtland G.H.: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2) 김종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강원광장, 85(11/12), 2008.

3) 환경적 조치가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취해져야 한다는 원칙.

4) The 5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93. 2.

정책, 규범, 자금 등의 이행에 환경문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1999년 12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는 2001년 6월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는 이른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이라 불리는 EU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목표가 설정되었다. 새로운 전략목표는 보다 많고 더 나은 일자리와 보다 강한 사회적 결속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지식 기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사회적 결속,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것이다.

1999년 5월에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럽연합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명기함으로써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⁵⁾ (Article 2 of the EC Treaty).

2001년 6월 고틀보르크(Göteborg; Gothenburg)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는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European Union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했다. 이 전략의 기본 목적은 미래세대의 수요를 보장하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경제·환경정책이 서로 보완되어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요인이자 당면과제로서 ①지구 온난화 ②유해화학물질 소비와 식품안전성 관련 질병 저항성 ③빈곤 문제 ④인구의 연령 분포 ⑤생물다양성 및 토양 산성화 ⑥교통 혼잡 및 지역 불균형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전략 방향으로는 ▲정책간 상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횡단적(cross-cutting) 전략 ▲해결해야 할 4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주요 대책 마련 ▲전략의 이행과 추진 현황 검증의 3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환경 2010,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

5)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a.eu/en/treaties/dat/12002M/pdf/12002M_EN.pdf.

하에 제6차 환경행동 프로그램(6th EAP, 2002~2012)⁶⁾이 수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2002년부터 10년간 우선해야 할 정책영역으로 ①기후변화 ②자연과 생물 다양성 ③환경과 건강 ④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폐기물 관리의 4가지 영역을 들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목적·목표 도달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서 ①기존 EU법의 실행을 확보 ②이른바 정책영역에 환경적 요소를 통합 ③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패턴을 촉진 ④시민 참여 ⑤토지 이용에 환경을 고려의 5가지 방법을 들고 있다.

2.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2001)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각 정책분야의 주요 과제로 실행하기 위한 횡단적(cross-cutting) 제안이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정책입안 과정에 시민이나 기업의 참여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공통 농업정책(CAP: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통 어업정책(the Common Fisheries Policy), 공통 운수정책(the Common Transport Policy)이라는 공통정책을 재검토할 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 테마로 가져간다.

둘째, 리스본 전략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후변화, 인체 건강, 자연자원 약화, 교통 혼잡 및 토지 이용이라는 4가지 중점과제에 관한 대응이다.

셋째, 괴텐부르그(Göteborg) 이사회 후에 전략 실시 및 추진현황을 평가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매년 봄 이사회에서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몇 가지의 대표적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10명 정도의 전문가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라운드테이블’을 설립하고,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2년 1회 EU의 전략을 평가하는 관계자에 의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The 6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2-2012, 2002. 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2:242:0001:0015:EN:PDF>

두 번째 전략인 4가지 중점과제 분야의 목표 및 주요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억제, 그린에너지 사용 증대

- 목표 : 제 1단계로서 교토의정서에서의 의무(commitment)를 달성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보다 매년 평균 1%씩 감축
- EU는 다른 주요 선진공업국에 대해서도 의정서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

- 주요 대책

-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2010년까지)
- 에너지 과세로의 새로운 틀
-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거래
- 바이오연료와 같은 대체연료 촉진
- 에너지 효율 개선

2) 인체건강 보호

- 목표 : 식품 안전성 확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주요 대책

- 유럽식품기관(European Food Authority) 설립(2002년)
- 공통 농업정책(CAP)의 지원 방향을 ‘생산량’ 으로부터 ‘생산방법 및 생산물’ 로 전환
- 이해하기 쉬운 식품 라벨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의식을 향상시킴

3) 자연자원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

- 목표 :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의 생식지에 대한 압력을 줄임

- 경제성장 → 자원 이용 → 폐기물 발생이라는 사슬을 파괴해야 함

- 주요 대책

- 생물다양성과 자원 이용의 지표 확립

- 지구 규모의 지속가능성과 양립하는 수준까지 EU의 어선단을 감축
- 공통 농업정책(CAP) 개혁 추진
- 폐기물 감축을 위한 통합적 생산정책
- 환경책임에 관한 법률 준비(2003년까지)

4) 수송 시스템과 토지 이용 개선

- 목표 : 위원회는 경제성장이 수송에 따른 오염, 과밀화 증대를 부추기지 않도록 제안
 - 전원지역의 활성화 및 도시문제 대응에도 신경 쓸 필요
- 주요 대책
 - 다른 수송방법에 대해 바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조
 - 공공수송기관 및 철도에 우선 투자
 - 내륙 수로, 단거리 해로 이용 등

3. 개정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2006)

2005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추진 실적을 집계한 자료⁷⁾를 제출했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2001년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재검토하여 2006년 6월에 개정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개정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EU가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활 질을 계속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호, 사회적 평등과 결속, 경제적 번영, 국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의 환경성 나아가 사회적 혁신 잠재력을 갖출 수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주도하는 원칙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촉진과 보호, 세대 내 및 세대간 결속, 열린 민주적 사회, 시민 참여, 비즈니스 및 사회적 파트너 참여, 정책 일관성 및 거버넌스, 정책 통합, 최고의 유효 지식 활용, 예방원칙, 오염자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7) “The 2005 Review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nitial Stocktaking and Future Orientations”, COM(2005)37. Bull. 1/2-2005, point 1.4.35. SEC(2005)225.

- 리스본 전략과의 상승효과를 활용 : 경쟁력, 경제성장, 고용 창출 측면에서의 상승효과
- 보다 나은 규제 등 보다 나은 정책 결정 : 영향평가, 사후 정책영향평가, 공적 참여 및 이해관계자 참여
- 7가지 중점과제 추진
 - 기후변화 억제, 그린에너지 사용 증대
 - 지속가능한 수송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신규)
 - 천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
 - 공공보건 위협
 - 사회적 통합, 인구, 이민 (신규)
 - 글로벌 빈곤 퇴치 (신규)
- 지식사회에 공헌하는 횡단적(cross cutting) 정책 : 사회적 결속이나 고용 촉진에 공헌하는 교육·훈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기술행동 프로그램(ETAP) 실행 등
- 재정적·경제적 수단 : 시장 투명성과 적정 가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제적 수단 사용
- 커뮤니케이션, actor 동원, 성공의 추적 : EU 차원의 정보전달(communication), 지자체의 서명 및 실천 등
- 실행, 모니터링, 추적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지표의 10개 범주는 ①경제 발전 ②빈곤 퇴치와 사회적 통합 ③고령화 사회 ④공공보건 ⑤기후변화와 에너지 ⑥생산과 소비 형태 ⑦천연자원 관리 ⑧수송 ⑨적합한 관리체계 ⑩글로벌 협력이다.

4. 유럽 2020 전략 (2010)⁸⁾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 3월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경제금융 위기를 벗어나서 EU 경제가 지금부터 10년을 준비한다며 ‘유럽2020’⁹⁾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3대 핵심 선정 방향으로서 ▲지식과 기술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에 기반을 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고용증대와 기술습득, 빈곤 퇴치를 통해 사회 결속을 높이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들고, EU 레벨 및 각국 레벨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 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장과 고용을 위한 싸움에는 최고의 정치 레벨에 의한 인식과 유럽 전역의 이른 바 주체의 동원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유럽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명확히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5가지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José Manuel Barroso 위원장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유럽2020은 EU 경제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 ‘우리들이 현재 및 가까운 장래에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을 본 것이다. 금융경제 위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나 지속 불가능한 풍조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유럽은 성장 부족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는 단호하게 약점에 대응하고 많은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 저탄소 경제, 고고용 수준에 기반한 신경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싸움에는 유럽 전역의 모든 주체가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유럽은 세계 경제 금융 위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우리 경제는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어느 회원국도, 단독 행동으로 세계 규모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제휴함으로써 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위기

8)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http://ec.europa.eu/eu2020/index_en.htm.

9) European Commission: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2010. 3. 3.,
http://ec.europa.eu/eu2020/index_en.htm.

탈출 성공 여부는 회원국간에 경제정책의 긴밀한 협조에 달려 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상대적인 쇠퇴, 회복 불가능한 성장, 구조적인 고실업률이라는 ‘잃어버린 10년’에 빠진다.

따라서 유럽 2020 전략은 앞으로 10년간의 유럽 사회 시장경제를 위한 비전을 그려서, 연동해 서로 보완하는 세 가지 우선 영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 지식과 혁신(innovation)에 근거한 경제 발전
-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 저탄소, 자원 효율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경제의 추진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사회적 결속, 영토적 결속의 강화를 가져오는 고고용 경제의 육성

위의 세 가지 목표는, 다섯 개의 대표적인 EU 레벨의 중요 목표에 비추어 진행 현황이 평가되며,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출발점을 반영한 국가레벨의 목표 설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 ① 20세~64세 인구의 고용비율을 현재의 69%에서 75%까지 끌어올림
- ② EU GDP의 3%를 연구개발(R&D)에 투자토록 하며, 기술혁신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함
- ③ ‘20/20/20’이라는 기후/에너지 목표¹⁰⁾를 달성해야 함
- ④ 조기 학업중단자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10% 이하로, 젊은층의 대학 졸업 비율을 현재의 31%에서 40% 이상으로 높임
- ⑤ 현재 빈곤 위험인구의 25%를 줄여 2000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핵심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구성되는 유럽 2020 의제를 제안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시행은 회원국 공통의 우선 사항이며, 모든 레벨(EU레벨의 기관, 회원국, 지방 및 지역 정부)로의 행동이 요구되게 될 것이다.

10) 2007년 3월에 EU가 설정한 목표이며, 2020년까지 다음의 3가지 점수 달성을 목표로 한다.

- (1)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부터 20% 감축
- (2) EU의 에너지 소비 중 2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함
- (3)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일차에너지 소비량을 항상 대책 미강구시 대비 수준에서 20% 감축

* The EU climate and energy package 참조.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climate_action.htm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관련

① 이노베이션(innovation) 연합

주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이노베이션(innovation) 정책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과학과 시장과의 사이의 갭을 메워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제품화에 연결한다. 예를 들면 공동특허권(Community Patent)에 의해, 기업은 매년 2억 8,900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

② 젊은이의 자유로운 이동

학생이나 신진 전문가의 유동성을 촉진함으로써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켜 국제적 매력을 높인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모든 회원국의 결원 정보는 유럽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경험은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③ 유럽에서의 디지털 과제

초고속 인터넷을 기초로 한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모든 유럽인이 2013년까지 고속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관련

④ 자원 효율적인 유럽

자원 효율적이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한다. 유럽은 에너지 생산, 효율 및 소비의 관점에서 2020년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600억 유로 상당의 석유·가스 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⑤ 환경에 우선권을 둔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

위기 이후의 세계에서 EU의 산업기반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이 정신을 길러 새로운 기술·기능(skills)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수 백 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관련

⑥ 새로운 기능과 고용을 위한 의제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 이후 고용 수준 인상이나 우리 사회 모델¹¹⁾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고려하여 노동시장 근대화를 위한 조건을 정비한다.

⑦ 빈곤 대책을 위한 유럽 플랫폼

빈곤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해, 그들이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확보한다.

유럽 2020은, 리더십과 책임 설명을 새로운 수준까지 오르게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춘계 유럽이사회에서 이 새로운 전략이 승인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이나 정부를 불러 이 새로운 전략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역할도 강화될 것이다.

핵심 이니셔티브가 회원국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통치력(governance)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진행 현황을 지켜 볼 예정이다. 유럽 2020 및 안정·성장 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두 전략에 따른 ‘보고’와 ‘평가’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이게 된다. 물론 개개의 전략 수단은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개의 전략이 유사한 개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들을 별개의 수단으로서 남길 수 있다.

5. 시사점

지금까지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2001)’, 개정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2006)’ 및 ‘유럽 2020’ 전략의 3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전략은 사회적 결속을 바탕으로 횡단적(cross-cutting)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두 환경과 경제의 공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찌 보면 환경과 경제 공생의 전제 조건이 경제적 번영의 유지, 즉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유럽 2020’ 전략에서는 환경에 우선권을 둔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11) 2000년 리스본 전략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 ‘완전 고용’과 ‘사회적 결속 강화’를 유럽 사회 모델의 기초로 들고 있다.

도모하고 고용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들 전략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 몇 가지를 들어본다.

우선, 전략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전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경우 격년으로 전략의 이행 여부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¹²⁾

개정 ‘EU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서는 이전 전략에는 없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 추가되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실현해 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추진하여 경제성장과 환경파괴를 decoupling하려는 것이다. 제품과 제조공정의 환경적·사회적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목표치로서 친환경제품의 공공구매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환경기술과 eco-innovation 영역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을 높여 갈 예정이다.

R&D 투자 확대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EU는 2008년 8월 2009년 FP7(제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을 확정했다.¹³⁾ EU는 연구개발 정책이 지식 향상, 실질적 도구 개발, 관련 기술과 시스템의 개발 장려, 인식 증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FP7에서는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의 연구개발 지역 구현’을 핵심 목표로 하며, 단일 연구개발 프로그램상 세계 최대 규모인 532억 7천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12) 다음 예와 같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EU policies: 2009 Review of the European Union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2009) 400 final, 2009. 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9:0400:FIN:en:PDF>.

13) Seventh Framework Programme (FP7). http://cordis.europa.eu/fp7/wp-2009_en.html.

< FP6와 FP7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6차 프로그램		7차 프로그램	
구조	3대 목표/7대 주요 분야		4대 목표/10대 주요 분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집중 및 통합 유럽연구개발지역 구축 유럽연구개발지역 기반 강화 	146.8억 유로 28.5억 유로 3.5억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협력 강화(cooperation)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idea) 연구자 유동성 강화(people) 유럽공동 연구역량 강화(capacity) 	324억 유로 75억 유로 47.5억 유로 40.9억 유로
	계	178.8억 유로	계	532.7억 유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과학, 유전공학, 바이오 정보사회기술 나노기술 우주항공 식품 질, 안전 지속가능 발전 지식기반 국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 식품, 농업 및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재료 및 신생산기술 에너지 환경(대기변화 포함) 운송(항공 포함) 사회과학, 경제학 안전기술 우주 	

위에서 살펴 본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으로부터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간 통합 내지 횡단적 전략이 필요하며, 환경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수립된 정책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함으로써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R&D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투자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김만영

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장

- 2005. 9~2009. 4 친환경상품진흥원 연구센터장
- 2000. 7~2005. 9 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 1987.10~2000. 6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위원
- 1984. 3.~1987.10 한국화학연구소 연구원
- 1997. 2. 충북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공학박사)

2010 Special Issu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 (613-2번지)

TEL 02-380-0363 FAX 02-380-0395

www.keiti.re.kr www.konetic.or.kr